

광주시·전남도, 복합혁신센터 건립 '파열음'

건립비 152억 부담·공동발전기금 조성 놓고 논란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상생 찬물 끼얹을까 우려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의 미래를 설계 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152억 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자칫 민선 7기 출범 초기부터 시·도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혁신도시 시즌 2'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과 혁신도시발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혁신도시 유지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상생의 표본을 보였다'는 점을 눈여겨 본 정부는 빛가람혁신도시의 혁신도시발전재단·혁신도시발전센터를 오는 2021년 완공, 바람직한 성공 모델로 전국에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나주 빛가람동 199번지 5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 282억원 중 정부가 130억원을 부담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15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 복합혁신센터에 창업인큐베이터, 기업전시실, 산학연발전센터 등을 조성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지원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학 등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시즌 2의 컨트롤타워인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해 복합혁신센터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혁신도시발전재단은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19명과 외부 전문가 7명 등 모두 26명 규모로 설립되며, 시·도가 번갈아가면서 사무국장을 파견하고 센터장을 공모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합혁신센터 건립 비용 중 지자체 부담인 152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시·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광주시는 이전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등을 모은 527억원이 이미 마련돼 있으니 이 돈으로 센터를 우선 건립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시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부터 걷은 지방세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006년 2월 14일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신정훈 나주시장이 나주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유지하면서 작성한 '성과공유협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지하되 이를 통해 조성되는 지방비 등은 특정 지자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게 성과공유협약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후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난 2014년 10억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37억원가량이 전남도와 나주시의 지방세 등으로 확보됐지만, 약속했던 공동발전기금은 단 한 푼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혁신도시발전재단·복합혁신센터 설립과 건립을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추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지방세 등으로 537억원을 걷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주여건 개선 비용으로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1576억원이 투입돼 당장은 공동발전기금 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빛가람혁신도시를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이 나주에 둥지를 틀 수 있었던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면서 "민선 7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혁신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생 차원에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폭 기자 kroh@kwangju.co.kr



더위에 분수가 최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4.3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전남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찾은 한 학생이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폭폭 쪼다" 광주 전남 폭염·열대야

올 들어 광주에 첫 열대야를 불러온 폭염이 일주일 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전날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관측됐다.

주요 지역 오전 최저기온은 목포 25.9도, 진도 25.8도, 광주·영광 25.1도였다. 광주의 열대야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0일 늦었고 최근 10년(2008-2017년)보다 4일 빠르게 찾아왔다. 전남에서는 지난 2일 목포·영암·장흥·진도에서 올해 첫 열대야

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주말부터 오는 22일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공기가 유입돼 평년(최저기온 22-23도, 최고기온 27-31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예상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2020년 5·18 40주년 세계적 행사로

광주시, 국회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202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세계적 행사로 치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주화 투쟁 역사를 지닌 전세계의 도시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5·18 정신을 광주를 넘어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이장미 정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별실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예산 및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 국회의원들 전원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국민의당 분당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여권의 무관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특히 2020년 5·18은 세계적인 행사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나타냈다. 이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4년을 헤매왔다"며 "현실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털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6월 협약식이 이뤄졌는데 가능하면 빨리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자, 이 시장은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민간공항은 조건없이 전남도에 내려보내겠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이 시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찾아 공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과정에서 김경진 의원이 한전공대 유치에 비판적 발언을 내놓자 장병완 의원은 "한전공대는 5만평 정도의 부지에 대학원 중심으로 설립해야하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 의원들은 "광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돕겠다"면서도 "실국장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다. 현안 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정치권이 사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광주시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정치 일선 물러나 독일서 성찰"

정계은퇴 아닌 일선 퇴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정치 일선 퇴진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5년 9개월간 정치를 하면서 다짐했던 시대를 개혁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이제 더 깊은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려 한다. 세계 곳곳에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 휴지기를 갖고 국민과 시대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두고 '통일 독일'을 연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계 은퇴가 아닌 일선 퇴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남뉴스

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일보
 이홍재의 세상만사
 -꿈의 그라운드, 심장이 터져도 좋다 ▶2면
 신팔도유람
 -제주 밤바다에서 쉼 위 댄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WITCH TO EQ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문흥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림로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t), 복합회합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